

우리 12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문장 표현 부분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문장 표현은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진행하진 않았어.

이 안에 중의법 부분만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나오는 문제 구성을 보면서

여기에 나온 답지 유형을 통해서 칠판에 유형화해보도록 할게요.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노트인데

과제 수행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 배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 잘못된 문장이라고 되어있어요.

첫 번째,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게요.

지금 보니까, 잘못된 문장을 여러분이 찾아야 될 때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항상 문장 성분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했죠?

서술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어를 먼저 찾아주고.

그러면 서술어랑 뭐랑 호응이 맞아야 되느냐,

주로 주어,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예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을

여러분이 따져보면 되는 건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거는

이 부사어 쪽을 많이 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사어 중에서 우리 어떤 부사가 있냐면,

문장 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장 부사 중에서도 양태 부사라고 해서 이 양태부사가 붙게 되면

전체 문장 내에서 서술어의 형태를 좀 정해주는.

그래서 연결어미 형태를 정해주는 그런 구성이 나온다고 했죠?

비록, 만일, 설령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어휘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뒤쪽에 어떨 때는 부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추측형 형태의 문장이 나온다고 하는 식의

뒤쪽 서술어가 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문제를 풀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사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 안 되는 거 고쳐주는 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이 안 되는 걸 잘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있는 경우라고 이야기했어요.

과도한 생략이죠?

반드시 필요한데 없는 경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올바른 문장 표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어체가 아니야.

이게 실제 대화 형태는 여기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에 쓰여야 될 건데 그러면 글에 쓰여야 할 때는 정상적으로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이런 거 필요하면 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이 문장 성분의 과도한 생략 부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하겠어요?

서술어가 역시나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항상 따져봐야 돼.

그다음,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중의적 이야기는 이쪽에 써볼까요?

중의적 문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쪽에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노래하는 것을 전혀 싫어한다고 되어있어요.

뭐의 문제인지 알겠어요?

전혀가 지금 부사어야.

그런데 전혀 ~하지 않는다가 나와줘야죠?

부정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ㄱ이 지금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줬냐면, 서술어로 바꿔줘도 되겠지만.

그래서 선생님, 지금 문장을

어떻게 바꿔줘야 옳은 문장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잘못된 문장인 것만 찾아내면 돼.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만 하더라도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안 맞으니까

서술어를 바꾸든지 아니면 부사어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1번에 선택한 방법은 바로 부사어를 바꾸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전혀 싫어한다를 매우 싫어한다, 이렇게 갖고

만약에 그게 싫으면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부정적 표현을 서술어에 넣어주는 것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1번 답지는 어쨌든 잘못됐다는 걸 확인했고

바꿔줬더니 어울리는구나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2번 답지 보게 되면, ㄴ 문장이네요.

이곳에 풍부한 일조량은 키우기에 적합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키우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보게 되면

안은 문장이 만들어졌잖아요, 명사절.

그런데 키우다였을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 키우다, 라는 서술어는 자릿수가 뭐가 필요하죠?

누가 무엇을 키우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

따라서 2번에 농작물과 같은 말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이곳에 풍부한 일조량은 농작물을 키우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넣어주고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올바른 문장 표현 단어는 일단해보시는 겁니다.

여기 시키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시간은 좀 동등하게 같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러한 유형을 좀 알고 있으면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익숙해지니까.
그다음요.

ㄷ을 보게 되면, 아파서가 만약에랑 호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만약 민수가 아파서 너는 그를 돌봐줘야 한다.

잘못된 문장이 맞아요.

그러면 이거 고쳐줘야 하는데, 3번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아파서가 만약이랑 호응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니로 바꾸래요.

바꿔봅니다.

만약 민수가 아프니 너는 그를 돌봐줘야 한다.

이상하죠?

그러면 만약이라고 하는 부사어는 ~하다면이라고 하는

용언의 어미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는 게 맞겠어요?

만약 민수가 아프다면, 아프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호응 안 맞는 건 맞다는 겁니다.

부사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안 맞긴 하지만

어미의 변화를 지금 잘못 선택했다.

그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인간은 운명을 개척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 순응하기도 한다고 하는 부분이 무엇에 순응하는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부사어인 운명에를 추가해줬고요.

5번에 보게 되면, 중의적 해석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감한 영호의 아버지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중의적 문장 중에서 수식 범위의 모호성 때문에.

여러분, 이 중의적 문장은 잘못된 문장은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아까 전에 문장 성분의 호응이 안 되거나

아니면 문장 성분이 필요한데

과도하게 생략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비문이에요.

잘못된 문장입니다.

그런데 중의적 문장은 잘못된 문장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애는 좀 명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명료하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좀 바꿔줄 순 있는 거지

애가 비문은 아니라는 점 아시겠죠?

그래서 수식 범위의 모호성.

애가 나왔잖아요.

어떤 거 나왔습니까?

용감한 영호의 아버지.

그러면 애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야?

용감한이 영호를 꾸며주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를 꾸며주는 건지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호를 주목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 방법은 이게 제일 좋아요.

쉽표.

쉽표를 여기다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버지를 수식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방법은 이겁니다.

용감한 영호의 아버지, 이렇게 갑니다.

용감한 영호의 아버지, 이렇게 나가면

확실히 이 용감한과 영호가 붙어버리면서

용감한 영호의 아버지, 이러면 용감한 영호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용감한, 영호의 아버지.

해서 쉽표를 여기다 찍어주게 되면 그때는 아버지를 꾸며줘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잘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때는 여기다 넣어주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용감한 영호의, 아버지.

이래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에서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영호를 꾸며주고 싶으면 쉽표 여기다 찍어주고

아버지를 꾸며주고 싶으면

위치를 변동하는 방법을 더 많이 답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이쪽 잘 안 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 갑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보기의 ㄱ부터 ㄷ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경준이는 손이 크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휘의 모호성이라고 잡아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온 순서대로예요.

동음이의어.

이런 거 어휘적 중의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이 손이라고 하는 건 진짜는 손을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는 손을 또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이기 때문에 이거의 문제인 거죠?

여기서는 손이 다의어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1번 의미.

우리가 중심적 의미라고 하면 신체의 손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의미들을 따져보게 되면 어떤 것도 있어요?

썸썸이의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용구로 손이 크다고 하면 썸썸이가 헤프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ㄴ 같은 경우에는 구두를 신고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구문이에요.

~하고 있다는 중의인데 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진행인데 이게 행위의 진행인지

아니면 상태의 지속인지가 헷갈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무 때나 -고 있다를 쓴다고 해서

두 개의 중의성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먹고 있다 그러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때는 1번이죠.

이거로 해석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먹다고 하는 동사는 -고 있다가 붙게 되면

무조건 진행상으로만 설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구두를 신고 있다 이러면 이럴 때 좀 문제가 돼요.

구두를 신고 있다는 신발장 앞에서 신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두를 신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건지, 이런 애매함.

쓰고 있다, 이런 단어들.

주로 몸에 착용하는 거.

이런 이미지들이 그런 어휘들이 이런 중의적인 형태를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거 기억해주시고.

그다음에 3번, 수식 범위 문제인 거죠?

이것도 아름다운 그녀의 어머니.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수식 범위의 모호성.

어머니가 아름답다는 거냐 그녀가 아름답다는 거냐.

그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수량의 중의성인데요.

예문으로 어떤 걸 잡아주고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사과와 귤 두 개.

그러면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나요?

이때는 이 와가 연결된 중의적인 요소가 많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사과와 귤 두 개가 사과 하나, 귤 하나 각각씩인지

아니면 사과 하나와 귤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건지

둘 다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나면, 사과 뒤에 개수를 넣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과 몇 개와 귤 몇 개.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중의문은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는 비문이 아니에요.

그다음 갑니다.

5번에 웃으면서 들어오는 소민이.

이것도 수식 범위의 모호성에 좀 연결이 되는데요.

주어까지 써야 되죠?

지훈이는, 이거는 수식 범위의 모호성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연결어미의 모호성의 느낌이 나는 거죠.

이거는 연결어미의 모호성이라고 써볼까요?

5번.

-면서 구성일 때의 생기는 문제예요.

이거 어떤 문제냐면, 이때는 뭐가 문제냐,

웃으면서가 누구 거냐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가 지훈이는인지 아니면 소민이인 건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훈이가 웃는 거로 만들어주고 싶다고 한다면

지훈이는 웃으면서 하고 쉽표 찍어주면 돼.

그런데 만약에 웃으면서를 소민이로 넣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들어오면서 웃는 소민이, 이러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 둘의 위치를 바꿔주면

이 들어오면서가 또 누구 건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소민이를 꾸며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쉽표를 찍어주면 되는 거죠.

지훈이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소민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는 빨간색 지훈이, 그러면 여기다, 웃는 주체를.

소민이를 웃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찍어주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결어미 -면서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 중의성 부분입니다.

따라서 2번에 5번 답지는 왜 틀린 건지 알겠습니까?

웃으면서의 주체가 지훈이인지 아니면 지훈이와 소민인지가 아니라

지훈이인지 소민이인지 그게 헷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을 위한 학습 자료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에 보시면, 문제는.

이런 구성 보세요.

문제는이 전체 주어부입니다.

그러면 일을 끝마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뭐다? 점이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어하고 서술어의 호응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어부와 서술부를 큼지막하게 한번 끊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중간에 막 수식어가 나오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서술어에 밑줄이 딱 쳐져 있으니까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만 떼어다 읽어보면,

문제는 뭐라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면 중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휘 중복을 피해서 1번 답지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걸린다는 점이다로 고치라는 거죠.

좋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사동 표현.

이런 것들도 문제 나오죠.

기억하십니까?

불필요한 사동 표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명사 어근+시키다 구조로 되어있는 단어가 있었을 때

애를 명사+하다로 만들어봤어요.

그랬을 때 애가 어울리더라.

그러면 애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2번에 보게 되면,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달라.

소개시키다가 나왔는데 그거를 소개해달라 말했다.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 소개시키다는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고 비문이에요.

그래서 2번도 수정해줬고.

다음 3번, 조사의 선택이 잘못됐어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어떤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로서를 쓸 자리를 로써로 쓴다든지

로써를 쓸 자리에 로서를 쓴다든지.

제대로 이해 못 해서 그런 거죠.

어떻게 잡아요?

우리가 로서의 경우에는 자격, 이렇게 했죠.

학생으로서 지각을 해선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로서 쓰는 겁니다.

로써 쓰는 거 뭐예요?

도구나 수단.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수준에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나머지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기준점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시작점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아직은 나오긴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ㄷ 보시면,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으로써를 써주는 게.

지금 으로써가 도구나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는 학급회장.

그다음에 으로서가.

왜? 여기는 자격을 나타내는 어휘가 나와줘야 되니까 3번 설명도 맞죠.

그다음에 ㄹ, 이거 중의문이죠?

성실한 그의 동생.

아까 거 본 거랑 유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식 범위의 불분명성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식 대상이 동생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썬표 찍고 동생.

그리고 그가 수식 대상이다 그러면 성실한 찍고 그의 동생.

이렇게 잡아준다는 이야기죠.

좋아요.

아, 잘못 말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지금 4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성실한.

이거 똑같이 가요.

다시, 그를 꾸며 싶은 거다, 라고 하면 어떻게?

여기다 쉽표 찍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꾸며주고 싶은 경우에.

여기다 지금 찍어놨죠? 잘못된 거야.

그리고 또 동생을 꾸며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다 찍어주라니까요?

그런데 동생일 경우 여기다 찍어놨죠.

서로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지금 틀린 답지가 되는 것이고.

다음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또 다른 형태예요.

그냥 이거는 번역투 문장도 간혹가다 답지에 끼었을 순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투 문장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식 번역투, 일본어식 번역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번역투 문장의 경우에는 비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문장의 다양성이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이거는 우리 좋은 문장도 있으니까

여지간하면 안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권장해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번역투는

우리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뭐 나왔어요?

회의를 가질...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이번 주말에 우리는 회의를 할 예정이다,
회의할 예정이다.

보통의 이런 번역투 문장은 수정해주는 문장을 보게 되면 더 경제적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회의를 갖다, 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have a meeting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 **have** 문장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have, take, get.

이런 것들을 맨날 애네는 구문처럼 쓰다 보니까

그런 표현에서는 뭘 가지다, 뭘 갖다.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투 문장은 수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수정문이 좀 더 경제적이다.

더 짧아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문장의 이해가 더 쉽고.

그래서 여기는 회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틀리기 쉬운 문장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입니다.

적절하게 고쳐 쓴 문장을 골라라.

이거였죠?

첫 번째는 잘못된 시간 표현이었어요.

과거 시제를 썼어야 되는 걸 현재 시제를 쓴다든지

현재 시제를 쓸 것은 미래 시제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문을 보시면,

선생님께서 아직 도착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도착하다고 하는 건 완료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료가 진행적으로 표현해주는 상처리를 잘못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미완료성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ㄱ은 괜찮았어요.

다음 ㄴ에 보게 되면, 이것도 불필요한 사동만 나오나?

이중 피동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동과 피동 표현 중에서 이런 고쳐쓰기 문제.

또는 문장의 자연스러운 거 골라내는 문제에서는 자주 걸려요,

사동, 피동.

그래서 피동에서는 바로 이중 피동 부분인데

여기서는 시작될 것으로 보여진다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보여지다의 형태소를 구분하면 보이어지+ㄴ+다.

이렇게 간다면 여기서 피동의 자료가 뭐랑 뭐?

여기에 있는 이랑 어지가 전부 다 피동의 재료라는 걸 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피동의 재료 어떤 거 있었습니까?

파생적 피동에 이, 히, 리, 기 있었잖아요.

파생적 피동에 ~되다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통사적 피동으로는 ~하게 되다 그리고 ~어지다.

그래서 이 4개의 재료를 외운 상태에서

이 4개 중에 2개 이상이 중복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는 둘 중에 하나를 지우면 되겠죠.

그런데 보아진다보다는 보인다, 이렇게 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요.

따라서 ㄱ과 ㄴ이 정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나)에 보게 되면 모호한 문장의 사용인데

이거 부정문의 모호성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예문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여기에 있는 이 부정문이 도대체 애를 부정하는 건지

애를 부정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 온 건 아니라는 이야기라면 일부는 온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한 10명이 오기로 했었는데 2, 3명이 안 왔다 그러면 다는 안 온 거죠.

그런데 애를 꾸며주는.

이건 맞고 애를 부정해주는 건 다 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100% 안 왔다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중의가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일부는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는 넣어주면 어떨까?

학생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일부는 왔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일부가 왔다는 거.

그러면 전체가 안 온 걸 이야기해주려고 한다면

애를 바꿔주는 방법도 좋겠죠.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면 아무도 100% 안 오게 돼버립니다.

이런 식의 어휘 방법인데 지금 보면, 어떻게 바꿨어?

모든 학생이 소풍 장소에 다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예문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은 곳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아무도,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지금 ㄷ처럼 바꿔주게 되면 일부는 온 게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정을 잘못했고.

다음,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비교 구문.

그래서 영희는 민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한다예요.

그런데 이런 문장은 어쩔 수 없어요.

중의문인데 이 중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장이 길어져요.

되게 지저분해지긴 합니다.

뭐냐하면, 영희가 결국 뭐냐면,

민수보다 게임을.

비교의 대상이 뭐냐면, 애랑 애가 비교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희는 민수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는데

게임을 민수보다 조금 더 좋아해.

이런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비교 대상이 애랑 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인데

민수가 게임을 좋아하는 거보다 영희가 게임을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애가 한 다섯 시간 하면 열 시간 게임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풀어주려면 되게 복잡해져요.

영희는 민수가 게임을 좋아하는 것보다 게임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간다면 완벽하게 해석되는 거죠?

아니면 영희는 민수를 좋아하는 것보다 게임을 더 좋아한다.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문은 아니에요.

비문은 아니지만 수정.

모호성을 해결해주기 위한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ㄹ처럼 바꿔주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바는 민수에 비해 영희가 게임을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둘 다 게임을 일단 좋아하긴 하는 거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면 비교 대상이 게임과 민수가 돼버려요.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잘못된 사용이 여기 지금 또 나왔는데

여러분, 정답은 1번이 답이었던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서술어가 지금 상의하다가 나와요.

상의하다, 라는 건 서로 간의 주고 받음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지금 문장에 약은 약사에게 상의하십시오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꿔준 게

약은 약사께, 이건 높임 표현 잘못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약은 약사께 상의하십시요가 아니라 약은 약사와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게, 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의의 대상.

서로 간에 하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약사와, 이게 나와주면 되겠고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만 바꿔줘야 됩니까?

이러면 어떨까요?

약은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요.

그러면 에게를 유지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문의라고 하는 건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라고 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조사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의하다, 라는 서술어를 유지할 거라면

조사를 와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었고요.

ㄴ, 이런 거.

역시나, 이 여간이라고 하는 부사어가 나왔어.

그러면 이 여간 뒤에 부정어 나와야죠.

여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들에 핀 꽃이 여간 탐스러운 것이 아니다로 바꿔줬습니다.

여간 탐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다음 그의 장점은 모든 일에 성실하다.

그는 성실하다면 모르겠는데 그의 장점은 성실하다 안 되죠?

주어, 서술어 호응 안 맞아.

그러면 그는 성실하다 또는 그의 장점은 성실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다음에 ㄹ, 수량 문제였었죠.

아까 바꿔줬습니다.

5번에 수식 범위.

그래서 바꿔주는 거 보이죠.

이제 이러면 반복이야.

6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ㄱ부터 ㅁ에 잘못된 문장을 수정했다.

먼저 ㄱ에 서술어 주셨다가 요구하는 목적어가 없대요.

주다, 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가 몇 자리 서술어입니까?

누가 주어, 무엇을 목적어,

누구에게라는 부사어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예요.

이 문장을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뱃돈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원래는 할아버지께서 세뱃돈을 주셨다였거든요.

뭐가 빠진 거죠?

우리에게가 빠졌어.

그러면 목적어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부사어가 없었던 게 문제였지.

정답은 1번이 답이고요.

2번 ㄴ에 믿겨지지.

이중 피동 맞죠?

믿기어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역시나 믿기다, 믿어지다.

이 둘 다 쓸 수 있는데 굳이 두 개를 중복해서 쓴다면 이중 피동.

그래서 바뀌셨고요.

다음 ㄷ,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형태도 좀 잘 보세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편인데 보세요.

서술어가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와/과로 연결되어있으면 이 서술어가 애도, 애도

다 서술어일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잘못된 문장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연결되어있으니까 애는 잘해놓고 애랑 안 맞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내면 되는데,

ㄷ과 같은 문장입니다.

춤과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나갔어요.

춤을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서술어를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와 같이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ㅁ에 보게 되면, 이건 의미 중복이에요.

의미가 중복됩니다.

그 의미 중복이라는 건 주로 한자어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따뜻한 온정을 베풀다.

따뜻한 온정?

어때요?

이미 따뜻한 온 자가 담겨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 따뜻한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온정 아니면 따뜻한 정.

이렇게 바꿔줘야 옳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생.

이미 신입에 새로 들어오다의 의미가 있어요.

소개할게.

새로 들어온 신입생이야.

이것도 소개시켜줄게, 새로 들어온 신입생이야.

문장 완전 난리 났습니다.

소개할게, 새로 들어온 학생이야

아니면 소개할게, 신입생이야.

이렇게 설명해주면 충분하다는 거죠, 어휘 중복 부분은.

그다음요.

7번 가보도록 하죠.

먼저 이거야.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는 열지만 창작 활동을 열 수는 없다.

창작 활동을 하고, 넣어줍니다.

적절했죠?

다음, ㄴ은 이중 피동이네요.

보니까 불러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부르어지다,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역시나 불렀다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고요.

다음, 이것도 자주 나오죠.

8번, 의의 중의.

무슨 이야기였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A의 그림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의 그림.

이거 중의.

의미가 너무 많은 걸 담고 있다는 거죠.

의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래서 아버지가 그린 그림인지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인지

아버지가 산 그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의적인 해석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그린 그림,

아버지가 구매한 그림,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

이렇게 다 넣어줘야 돼요.

따라서 지금 3번 답지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나의 위치를 바꿔준다고 해서 중의가 해소되진 않아요.

그래서 ㄷ 틀렸고요.

다음 ㄹ, 이거는 조사 사용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지금 보면 우리가 유정 명사냐 무정 명사냐.

유정 명사 뭐예요?

대상이 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부사격 조사로 ~에게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무정 명사라고 한다면 ~에를 써야 돼.

이것도 구분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나무에게는 안 되죠.

나무는 유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무에 물을 주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잘 수정해줬다.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다음 8번 가보도록 하죠.

A의 의미 중복 표현.

그다음에 B에는 중의문이 만들어진 걸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걸 하나씩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ㄱ은 뭐의 문제일까요?

그냥 이거는 어휘의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냥 어휘를 잘못 쓴 거야.

무슨 이야기냐, 쳐다보았다, 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쳐다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치어다보다예요.

그러면 치어다보다 할 때의 이 치가 어떤 개념이냐면,

아래에서 위로예요.

그런데 문장을 보시면, 선생님께서는 앉아있는 학생 등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쳐다보지?

선생님이 여기 있고 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보다 눈 아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다보았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거지

쳐다보았다는 안 되지 않냐.

선생님, 그러면 쳐다보다는 꼭 이렇게 올려봐야 됩니까?

아니요.

정면을 보기도 가능하대요, 원래는 그 뜻이.

그런데 앉아있는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면 보면 학생들 안 보는 거야.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건데 이거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걸 그냥 바라보았다.

이러면 안면 보고.

그래서 어휘 사용의 문제인 거지 A나 B 쪽에 해당하는 건 아니예요.

그다음 ㄴ의 경우에는 뿌리 뽑아 근절하다.

근절, 한자어.

이 근 자 무슨 근 자?

뿌리 근, 끊을 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미 뿌리 뽑다, 라는 의미가 사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휘 중복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A의 선택.

A는 ㄴ과 관련된 것이고.

다음에 남학생과 여학생 두 명.

아까 수량은 중의였죠?

그래서 애는 B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ㄹ은 뭘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웬지 어떤 느낌이야?

이거 번역투 문장이죠.

영어 번역투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우 중요하도로 강조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ㄱ부터 ㄹ의 예들 나와 있고 애네들이 잘못된 문장이기 때문에

수정 방법 알려줬고 잘 수정한 거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대하지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면 뭘 넣어줍니까?

예의가 바른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사어가 지금 잘 들어갔습니다.

ㄴ 가볼까요?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그러면 친하게 지낼 사람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친구와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2번도 좋겠죠.

다음, 3번에 되지는에 어울리는 성분이 없어.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앞에 뭐 넣어줘야죠?

미리 예상하세요.

그것이.

그런데 여기는 여전히라고 하는 부사어가 들어온 차례죠?

주어가 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존경했다, 누구를?

목적어 지금 안 나와 있어.

그래서 4번은 선생님을 껴줬어요.

유학자이다.

누가 유학자이다가 안 나와 있어요.

따라서 그는, 이렇게.

앞에 이에 호는 나왔기 때문에 받아주기 위해 그냥 그는 써준 거죠?

적절했어요.

그다음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에 들어갈 예.

보기 내용을 보게 되면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나가면 호응한 맞죠?

그래서 이 주어인 사실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

잘못된 문장.

이렇게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 안 맞는 거 골라보자였습니다.

1번,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한번 수정해보세요.

뭐의 문제인지.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무슨 소리야.

어휘가 중복돼있죠?

그러니까 상품을, 이렇게 해야죠.

회원들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주든지 아니면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어쨌든 1번은 틀려요.

그런데 이것은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 안 맞아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2번 가볼까요?

이 글의 특징을까지 사선.

그러면 주어부가 이 글의 특징은, 서술어 뭐 나와야 될까?

~라는 것이다, ~라는 점이 다를 기대하고 봤더니 아니야.

인상이 강하다.

이 글의 특징은 인상이 강하다.

인상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은 뭐의 문제일까요?

아들의 성공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었다.

여간하다,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활용으로 관용어가 됐어.

여간한.

이렇게 수식해줬을 때는 뒤에 부정어랑 어울려요.

그래서 여간한 기쁨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다음, 4번은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을 높여주었다.

이거죠?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을 높여준다.

그러면 연료 효율은 높여주는 게 맞지만 유해 물질을 높여주면 큰일 나죠.

유해 물질을 줄여주고, 서술어가 필요해요.

다음, 5번에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

이것도 좀 그래.

그러니까 3번에 나와 있는 여간하다, 라는 단어.

그리고 5번에 나와 있는 형언 하다, 라는 단어가

지금 애는 관형어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관형어가 돼서 뭔가를 꾸미고 서술어를 어떤 걸 기대해야 되냐면,

부정어를 기대해야 돼요.

예를 들면 5번은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을 몰랐다.

형언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어의 어휘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 5번이 같은 맥락이고요.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 안 맞는 걸 골라보는 거니까 2번이 답인 거.

11번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죠.

적절하게 고쳐 쓴 것만 골라보재요.

예 1번, 문제는 누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안 되죠?

부어부가 문제는이니까

문제는 누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잘 바뀌웠어.

예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책상이 너무 커서 자리 중 많이 차지한다.

책상이 너무 커서 자리 중 많이 차지한다?

이상했어요.

그래서 바뀌웠어요.

보니까 책상이 너무 커서 자리로 많이 차지한다.

자리로? 아니죠.

목적어가 필요하지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잘못됐습니다.

다음 예 3번,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일을 차분하게 해라.

시간을 구애받다?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다가 맞죠?

그러면 조사의 선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ㄷ도 바꿔주니까 적절했어요.

예 4번 가보겠습니다.

예 4번은 조사의 선택도 봐야 되지만 어미의 선택도 잘 보셔야 돼요.

예 4번 보세요.

그는 비록 몸은 고단하도록 마음만은 행복해 보였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줬냐,

그는 비록 몸은 고단하면서 마음만은 행복해 보였다고 안 되죠?

고단하면서가 아니라 고단하지만 해서

면서가 아닌 지만으로 어미를 바꿔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12번 보도록 하죠.

중의의 해석 부분입니다.

계속 반복했어요.

1번, 싹포 넣어주는 게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 1처럼 바꿔주게 되면 꾸미는 대상이 누가 된다?

키가 큰 건 누구다? 동생이에요, 이러면.

동생을 꾸며준 겁니다.

다음, 사과와 귤 두 개가 아니라 사과 하나 귤 두 개.

정확하게 뭐 해줬다?

수량을 넣어줬다는 거야.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

뭐냐하면, 수정은 잘해줬거든.

그런데 그 수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줬는지를 물어보는 구성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어봐야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답이었고 2번은 왜 틀려요?

다의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과와 귤 두 개의 개념은 다의어의 문제가 아니라

수량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었다는 문제죠.

그다음 3번에 보게 되면, 조사 첨가했습니까?

조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함께, 라는 어휘가 들어갔던 거죠.

부사어가.

방법이 잘못됐고요.

다음 4번, 어제 고향에서 온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위치 어제가 앞쪽에 와 있으니까 고향에서 온 시점이 어제인지

아니면 만난 시점이 어제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수식되는 대상과

수식하는 어휘가 거리상 가까워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제 만났다고 바꿔줬더니

고향에서 온 건 어제가 아니라는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위치만 이동했지 적절한 어휘가 들어간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5번에 보게 되면, 어순의 변경이 아니었죠.

여기는 밖에라고 하는 조사가 끼어 들어가면서

모호성이 해결된 구성이었어요.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배.

저 배 좀 봐라.

이러면 사람 배를 이야기하는 건지 타는 배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먹는 배를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배 앞에 먹음직스러운의 수식어를 넣어주면

중의성이 해소된다.

저 먹음직스러운 배 좀 봐라.

설마 사람 배를 먹겠어요?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1번 답지 중의성 해소 맞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결혼했다는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중의일까요?

철수와 영희는 각각 유부남, 유부녀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둘이 결혼했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철수는 영희와 결혼했다.

방법 아시겠죠?

그래서 홀문장인데 지금 철수와 영희는이라고 하는

공통 주어 부분을 철수는 주어로 만들고 영희와.

즉 부사어로 만들겠다는 거.

이러면 또 해소가 되죠.

3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녀의 목소리.

그녀를 맨 앞으로 보낸다.

그 이야기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붙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목소리가 아름답다는 거로 중의가 해소됩니다.

4번에 나보다와 드라마의 어순을 바꾸자고 했는데

남편은 드라마를 나보다 더 좋아한다.

이래도 똑같아, 어차피.

비교 구문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드라마가 비교 대상인지

남편과 내가 비교 대상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러면.

정답은 4번이었고요.

5번에 동수의 그림.

그걸 구체화.

동수가 그린으로 바꿔줍니다.

그다음 가보죠.

14번인데 이게 다소 옛날 문제이긴 하지만 참 좋아요, 이 구성이.

그래서 설명을 잘 보시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보기에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보기 읽어볼게요.

중의성을 가진 구성은 여러 가지로 했을 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구성이 중의성을 가진 구성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다.

직접 구성 요소는 하나의 구성을 일단 둘로 쪼갠 때

그 각각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푸른 가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직접 구성 요소는 푸른과 가을 하늘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ㄱ에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가 왜 중의가 형성됩니까?

애는 가을이 푸르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졌을 때

푸른이 하늘로 꾸민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로 잡아버리게 되면

토끼만 게으른 건지 아니면 토끼, 거북이가

다 게으른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ㄴ,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는 한마을에 살았다.

역시 중의가 해소되진 않아요.

그런데 ㄷ을 보시면,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그 뒤에 부지런한 거북이가 이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 뒤쪽에 부지런한 거북이라는 어휘가 나왔으니까

문맥상 이때의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라고 해도

토끼만 게으르구나, 라는 걸 안다는 이야기죠.

거북이까지는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뒤에 있는 문장과 상충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번, ㄱ은 토끼와 거북이가 모두 게으르다는 의미와

토끼만 게으르다는 의미 중의다.

2번, 여전히 ㄱ에 중의 남아 있다.

3번, ㄷ의 경우 부지런한이라는

그 어휘가 있기 때문에 토끼만 게으른 거다.

4번, ㄷ에서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게으른과 토끼와 거북이다.

이게 틀리죠.

왜냐하면 ㄷ은 문맥을 통해 토끼만 게으르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애를 묶어서 다 수식해준다는 개념이 돼 버려요.

안 된다, 알겠죠?

그러면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로 잡아야 되는 거죠.

5번에 보게 되면 ㄴ과 ㄷ을 통해서 중의성을 가진 구성이라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서는 ㄷ처럼 중의가 해소될 수도 있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15번 가보죠.

보기의 예문을 통해서 문장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나는 그를 안다.

반의어를 사용한 반의관계 문장이 나는 그를 모른다.

또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다음 2번 가겠습니다.

부정을 표현한 반의관계 문장 또 갑니다.

너는 고민할 필요 있다를 부정해주면 어떻게 되죠?

너는 고민할 필요 없다죠.

왜냐하면 있다, 라고 하는

이 존재사라고도 설정해주자는 주장이 있는 그 어휘는 딱 반의어가 없네요.

이걸 굳이 고민할 필요 있지 않다고 바꿔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없다라는 어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방안에 있다가의 반의관계는 방안에 없다 또는 방밖에 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방 안에 있다고 했을 때의 부정한 방법은

안에 반대인 밖도 좋고 있다가의 반대인 없다가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늑대가 양을 물었다를 피동 표현을 만든다, 라고 한다면

양이 늑대에게 물렸다가 되겠죠?

ㄱ에 그는 옳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나선다와 유의관계를 관용어를 이용하겠다고 할 때

발 벗고 나선다, 라는 표현.

그래서 적극적으로의 의미로 발 벗고 나선다를 써준다면

발 벗고가 관용어를 통해서 유의어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적극적으로의 의미로.

16번 가보도록 하죠.

이것도 이쪽이에요, 어미 선택.

1번 ㄱ은 우리 지금 어미 선택 중에 이런 예 역시

용언 가라, 가다할 때 가던지, 가든지.

이렇게 간다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 가던지, 라고 하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이 더나 던 계열.

이거는 회상.

그러면 이거는 좀 쉬워지죠.

선택이구나.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 애는 얼마나 빨리 가던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미를 선택할 때 던 계열, 더 계열.

이렇게 쓰이면 회상 개념입니다.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한 회상.

그러면 ㄱ은 가던지, 안 돼.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아요.

다음에 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가 이른 속도로 달렸다.

이른 속도는 뭐야, 도대체?

이르다, 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거보다,

기준점보다 더 빠르다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속도 개념만 이야기했으니까

이르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빠르므로 바꿔주는 게 적절하겠고

2번처럼 어휘가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이 주어부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는 점이다로 바꿔줬죠?

주어, 서술어 간의 호응이 안 맞았고

다음 ㄹ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많다고 할 때

어려운 게 한결같다는 거야 아니면 그 돕는 행동을 한결같이 한다는 거야.

이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줬어요.

어려운 이웃을 한결같이 돕는 사람.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식어와 수식 받는 대상을

지금 가까이 붙여놓으면서 중의를 해소했죠?

다음 ㄱ,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적절한 뭐로 봤죠?

관형어를 지금 넣어준 상태인데 문장 사이에 접속 표현.

와/과, ~랑.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답입니다.

ㄱ부터 ㄴ 가보도록 하죠.

1번 ㄱ, 17번입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로.

예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행동하자.

안 되죠?

주어부는 말은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행동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다음 2번,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비단이 부사어야.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었다 역시 부정어 필요해.

다음 ㄷ,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에 부적절한 생략.

나는 집에 오자마자 들고 있던 가방을 두었다.

어디에 두었느냐.

부사어가 필요해요.

다음 4번,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되어있다.

새로 산 자동차에 짐과 동생을 태우고 여행을 떠났다.

이거 어떤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짐과 동생을 태우고.

그러면 짐과 동생을 태우고.

태우다.

동생은 태울 수 있지만 짐을 태울 수는 없죠.

그래서 짐을 싣고 동생을 태우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다를 만약에 쓰면 어떨까요?

짐과 동생을 싣고, 이렇게 나가면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신다, 라고 하는 것이 사물도 되지만 사람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태우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짐은 안 된다는 거고요.

5번에 보게 되면, 의미 중복 아니죠.

이거는 뭐의 문제?

불필요한 사동 표현.

소개해주었다, 라고 바꿔준 거니까 소개시키다를 소개해주다.

사동 표현을 바로 잡은 겁니다.

폰 문제들이 얼마 없지만 중복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굳이 개념을 일일이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거보다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적어주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못됐다.

그는 마음먹은 대로 절대로 하고 만다.

그러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 라는 부정이 나오든지

아니면 반드시 ~하다, 라고 하는 긍정으로 강조를 하든지.

두 번째 방법을 썼네요.

다음 2번, 여러분, 이거 왜 틀리게요?

이것도 역시 어미의 선택의 문제예요.

알맞는 답을 고르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틀렸다는 겁니다.

은으로 바꾸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알맞다, 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는 형용사.

따라서 형용사 어간이 는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랑 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맞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형용사는 절대 는이랑 못 붙는 겁니까?

거기에 예외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있다나 없다 같은 종류죠.

그래서 그건 되게 특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있다의 경우는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없다는 그냥 형용사로만 쓰이는 건데

형용사로 쓰인 단어라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물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네는 좀 예외적인 것이지만

이런 알맞다의 경우에는 그 예외가 아닌 단어예요.

따라서 형용사이므로 는은 못 쓴다.

이렇게 꼭 외워주세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음, 3번에 불필요한 어휘 중복.

이 사람의 장점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장점은 뭐하러 두 번 쓰냐, 한 번 빼줬죠?

다음, 시간 표현의 잘못.

4번, 철수가 어제 집에 오지 않습니다.

이러면 현재가 되어버리죠, 뒤에 서술어가.

어제 집에 오지 않았습시다 하고 과거 넣었습니다.

다음, 인사발령이 나서 가게 되었다.

이러면 뭐의 문제겠어요?

어디에 갔는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문장 성분이 지나치게 생략된 경우는 맞는데

해소를 해주는 방법이 인사발령이 나서 급히 가게 되었다.

급히가 중요한 게 아니예요.

급히도 부사어이긴 한데

어디에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건.

급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 19번 가보도록 하죠.

ㄱ부터 ㄷ 중에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는데 반영된 거 고르라.

이런 문제 좀 복잡합니다, 까다롭죠.

왜냐하면 일단 보기 2에서

수정 전과 수정 후의 차이를 딱 발견하셔야 돼요.

위, 아래, 위, 아래 왔다 갔다 하는데 첫 번째 차이가 생겼습니다.

어디예요?

첫 번째 줄에 참여하려는을 참여한으로 바뀌요.

참여하려는을 참여한으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죠?

처음에 지난여름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어미가 ~하려 하다로 가게 되면

미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으로 과거 형태로 지금 만들어준 겁니다.

즉 ㄷ이 어미의 적절한 사용이 안 맞았기 때문에 바꿔준 거죠.

다음, 어쨌든 참여한 학생들은 각 지역에 청소년들과.

부사격 조사로 지금 예를 썼는데 부사격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청소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의로 바꿨습니다.

이건 조사의 문제였어요.

즉 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ㄷ과 ㄴ.

그다음요.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답사함으로써

사이에 유적지들이라는 목적어가 추가됐습니다.

즉 문장 성분이 없던 걸 넣어줬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

그 외에 있는 바뀐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ㄱ, ㄴ, ㄷ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4개의 문장 유형을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해보고 그리고 답지에 나와 있는 거에

A, B, C, D를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춰놓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1번이 답이잖아요.

1번은 뭐의 문제냐, A, B, C, D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모름지기 ~하여야만 한다, 라고 하는

당위성의 서술어가 나와줘야 해요.

그런데 모름지기 다할 줄 안다 이러니까 안 맞죠?

그래서 1번은 수정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잘못된 문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예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음, 2번은 어디에 해당해죠?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도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거는 어미의 문제니까 B.

다음 3번, 그 복지 시설은

지금 민간의 위탁이 운영 되고 있다면 되는데 되어지고.

그러면 이중 피동 문제죠? C.

다음,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듣는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와/과랑 같은 경우죠.

즉 텔레비전, 라디오를 똑같은 서술어 듣는대로 해결할 수 있냐.

안 되죠.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거나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텔레비전은 지금 목적어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텔레비전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D.

목적어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생략되어있다.

5번은 이것은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생신 선물로 드린 것이다, 라고 하면 좀 예의가 없죠.

비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높임 표현의 문제.

그래서 어머니께서 외할머니께로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죠.

이런 문제 좀 짜증 나요.

왜냐하면 적어도 보기에 이런 정보들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중에 골라봐.

이렇게 하면 좀 친절한 편인데 21번은 어떤 문제예요?

그냥 딱 문장들만 다섯 개 주고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걸 골라라.

결국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봤지?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문장 골라줘.

그러면 좀 잘못된 문장은 흠을 잡아야겠지.

수정하라는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

이런 식의 문제예요.

1번 가봅시다.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이론을 더욱 발전해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상한 점 찾아냈나요?

그는 서술어가 뭐죠? 발전해.

그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이론을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발전시켜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동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2번, 문제가 없어요, 정답이고요.

3번,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발달과 변화를 겪었다.

그렇게 하면 서술어가 생략돼 있습니다.

안 돼요.

발달 했고로 가야 돼요.

과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과가 나왔잖아요.

여기 명사 나왔으면 애도 명사 처리해줘야 돼요.

무엇과 무엇.

이렇게 나왔는데 발달과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 구성과 서술 구성이 나오면 그건 안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생산 기술이 발달했고 심포 찍어주고

그에 따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적절해요.

4번, 수월할 겁니다.

주어부는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는 요점은까지가 주어부죠?

그러면 서술어 뭐 나와야 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필요하죠.

5번에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에

혼동이나 각 작품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이상하다는 점은 발견했을 거예요.

어디 부분이겠어요?

학생들이 작품 이름을 혼동하거나.

각 작품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올바른 문장 표현으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훈련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단원 준비 잘 해오시고 강의 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